

“김진숙 복직 없이 정년 없고, 민주노조 운동도 없다”

희망버스, 9년 만에 영도 다시 찾아 ... 21일부터, 청와대 앞 복직 촉구 ‘11일 행동’ 전개

“9년 전 희망버스 때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김진숙 조합원 복직은 문재인 정부와 한진중공업이 반드시 풀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겠다. 김진숙 복직 없이 정년 없고, 민주노조 운동도 없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2월 19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연 ‘해고 없는 세상, 김진숙 복직과 쾌유로 가는 리멤버 희망버스’ 유튜브 생중계에서 이처럼 결의를 밝혔다.

2011년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85호 크레인 농성과 이 투쟁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이후 9년 만에 희망버스가 다시 부산 영도를 찾았다.

한진중공업 35년 해고자 ‘용접공 김진숙’의 복직과 쾌유를 바라는 전국의 노동자 시민들은 ‘리멤버 희망버스’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차를 이용해 부산으로 향했다.

이날 희망버스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했다. 승합차, 택시, 승용차, 대형 레미콘 등 다양한 차종으로 참여했다. 희망차량 탑승자들은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한 뒤 상 황실에 알렸다.

500여 대의 희망차량에 ‘알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희망버스’라는 홍보물을 부착했다. 이 차들은 국립해양박물관과 태종대 두 곳의 거점에서 출발해 영도를 순회하며 한진중공업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김진숙 희망버스’ 주최 측은 한진중



공업 정문 앞에 무대를 만들어 유튜브 생중계, 문화공연, 차량운행 상황 중계 등 행사 전반을 진행했다.

한진중공업 로비에서 단식 25일을 맞은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과 심진호 한진중공업지회장을 영상으로 근황을 전했다. 이어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대우버스·사무지회, 아시아케이오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쌍용차지부 등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 인터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을 벌이는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과 연결하고, 해외에서 김진숙 조합원을 응원하는 영상 편지를 소개했다. 민중기수 우창수, 임정득 동지와 신진문화예술행동 흥의 공연도 이어졌다.

이날 희망버스 상징의식으로 35년에 이르는 김진숙 조합원의 해고 기간을 상징하는 ‘35타중 행사’를 열었다. 김진숙의 복직을 바라며 각계 대표자 서른다섯 명이 통나무를 들고 굳게 닫힌 영도조선소 철문을 서른다섯 차례 두드렸다.

병원에서 암 치료 중인 김진숙 조합원은 영상 편지로 노동자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김 조합원은 “무엇을 더 해야 하나. 35년을 이어온 싸움. 얼마나 더 해야 하나. 35년간 외로웠던 싸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고 연말이 지나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진숙 조합원은 “해고자는 여전히 해고지고, 비정규직은 아직도 비정규적인

이 모습이 대통령이 꿈꾼 그 나라가 맞는가. 여전히 공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한진중공업 박창수, 김주익,곽재규, 최강서 열사 그들과 함께 돌아가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김진숙 조합원은 “치료 잘 받고 9년 전 희망버스와 조합원들의 힘으로 타워크레인에서 웃으면서 내려왔듯이 웃으면서 다시 돌아오겠다. 웃으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해고 없는 세상, 김진숙 복직과 쾌유로 가는 리멤버 희망버스’ 참가 노동자 시민들은 김진숙 조합원이 외치던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희망차량은 경적을 울리고, 공장 앞 무대에서는 ‘함께 가자 이 길을’을 부르며 마무리했다.

한진중공업은 끝내 민주화보상심사위의 복직 권고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를 거부했다.

‘리멤버 기획단’은 “한진중공업은 용서받을 기회를 건어쳤다”라고 비판했다.

기획단은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오채투지, 삼보일배, 촛불집회 등 ‘11일 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호원 공장 앞에 1천 대오 집결 조직한다”

26일 단식 김영옥 지회장, “금속노동자 이름으로 승리한다” ... 노사 대화는 시작

“호원 사태가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으면, 코로나 19·연말연시 핑계 대지 않고 위원장의 명령으로 호원 공장 앞에 1천 명이 넘는 금속노조 확대간부 집결을 조직하겠다. 호원 사업주가 끝장을 원하면 위원장으로서 집행하겠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2월 17일 광주 하남공단 호원 공장 앞에서 사측에 강력하게 경고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후 ‘노조와해 공작 호원 규탄,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1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 조합원들은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정문 앞과 후문 앞 두 곳에 99명씩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처음 공장에 들어가 대표이사를 만났다. 우리 호원지회 조합원들의 강고한 투쟁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라며 “순수한 노동자들이 투사가 되고 있다. 사측이 80년대식 노무관리 방식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준현 지부장은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면 임금이 오르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사라지리라 생각했다”라면서 “노조 간부들의 단식과 여성 조합원들의 삭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사측의 탄압을 규탄했다.

정준현 지부장은 “사측이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지부는 같이 갈 자신 있다”라며 “사장은 그 선택이 맞는 선택인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호원 사측, 끝까지 가고 싶은가?”

민주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26일째 단식을 진행하다 병원으로 호송된 김영옥 호원지회장이 전화를 통해 결의대회 참석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연대한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투쟁사를 했다.

김영옥 지회장은 “호원 사업주는 최근 지역 언론에 ‘내가 겁나 잘 해줘서 30년간 노동조합이 없었다’라고 떠들었다. 가정폭력을 휘두른 가정이 가족에게 자신 때문에 먹고 살았으니 조용히 살라고 강요하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김영옥 지회장은 “우리의 투쟁으

로 이런 값싼 말을 속 들어가게 해줘야 한다. 현재 호원의 노조탄압은 노동법 개악과 맞물려 있다. 금속노동자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결의대회에서 “호원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만들며 사측에 ‘막말하지 마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외쳤다”라면서 “노동자가 노동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방법뿐이다. 자본가들의 카르텔을 깨야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정준현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결의대회에 앞서 공장 안 농성천막으로 향했다. 김호규 위원장과 정준현 지부장은 김영옥 호원지회장 26일 단식 이후 릴레이 단식을 단행하고 있는 지회 대의원을 만나 격려했다.

지회장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 호원지회 조합원들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릴레이 동조단식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11일 호원공장 앞에서 열린 호원 규탄 결의대회에서 조합원 13명이 삭발을 단행했다.

김호규 위원장과 정준현 지부장은 이날 대표이사사와 노무 담당자 등과 20여 분 동안 면담했다. 지회에 따르면 지회 설립 이후 최초로 사측과 대화 테이블 위에서 만났다고 한다.